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시스템 설계 및 구축 방안 - 국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

박성종† · 한경일† †

요 약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기존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치밀하게 준비하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한 상태에서 도입이 결정된다면 각 영역별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되는 연결재무제표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영역별 연결재무제표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수목적기업의 연결 관련 영역, 내부거래제거 영역, 미실현손익의 제거 영역, 투자자본 상계 영역, 기타 영역으로 연결주식의 작성과 통합 CoA 설정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국제회계기준, 국내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시스템의 설계, 국제회계기준의 효과

Design and Construction of Information System on consolidation Financial statements According to K-IFRS - Focusing on local financial institution -

Sung-Jong Park† · Kyung-Il Han † †

ABSTRACT

It is very difficult to predict what effects the introduction of IFRS(International 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s) has on the existing system. Only the cautious and careful adoption of new system will minimize the confus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ppropriate design and construction of IS on financial statement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in order to minimize the confusion. In order to meet that purpose, suggestions on five areas in consolidation financial statement are proposed. Those five aspects are as follows: Area of SPE Consolidation, Area of internal transaction setoff, Area of unrealized gain or loss setoff, Area of eliminate the investment account against the stockholder's equity, Making Consolidation footnote and Consolidation CoA as other area

Key words : Introduction of IFRS, Design and construction of consolidation Financial statements, Effect of IFRS on AIS

†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1년 2월 8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1년 3월 25일

1. 서론

2011년에 우리나라는 회계제도에 있어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라는 새롭고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의 도입 로드맵에 따라 2011년부터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Korea-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4].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단순한 회계기준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회계기준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회계제도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회계인력, 조직구성, 관련시스템이 모두 Global Standard를 충족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전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국제회계기준이 도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회계정보시스템 중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결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금융회사의 경우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연결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특수하게 고려해야 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구축단계에 있어서 이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논의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시스템의 구축배경을 회계기준의 차이와 도입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금융기관이 K-IFRS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재무제표시스템을 구축할 때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하는 기능 중 중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2.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시스템 구축 배경

2.1 연결재무제표의 국내외 회계기준 차이

2.1.1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연결회계처리의 관점에서 K-GAAP (Korea-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인 기업회계기준서 25호 및 외감법시행령 등과 K-IFRS의 관련기준인 1027호 및 해석서 2012호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K-IFRS에서는 개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아니고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된다는 점이다 [6].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면 분기공시를 하는 기업의 경우 현행처럼 분기별로 개별재무제표만을 공시하고 1년에 한번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매 분기별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5].

2.1.2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의 변동

K-GAAP에서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를 포함 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에 대하여 한국의 실정을 반영하여 비교적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K-IFRS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므로 한국의 실정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범위의 정의도 K-GAAP보다는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 자회사의 범위가 변동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특수목적기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특수목적기업의 연결여부는 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의 K-GAAP에서는 특수목적기업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재무보고에 대한 실무의견서 2000-24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특수목적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의견서 2004-7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해서 설립된 투자회사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결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2]. 그러나 K-IFRS를 적용할 경우 기준에 연결에서 제외되던 특수목적기업이 K-IFRS 해석서 2012호에 따라 지배회사의 지배를 받는 경우로 판단될 경우 새로이 연결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2.2 연결재무제표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신속히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인, 감독기관등도 연결회계처리에 대한 근거

및 관련 데이터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됨에 따라 연결회계처리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수작업을 통하여 연결회계처리를 수행하던 회사라면 작성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연결회계처리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여야 한다[3].

또한 개별재무제표 제도하에서도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였으나 주재무제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감사인과 작성회사 모두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지만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는 환경하에서는 연결회계처리의 근거나 히스토리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이를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 이러한 이유로 연결재무제표의 회계처리를 시스템화 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3. 주요 영역별 연결재무제표시스템 도입방안

연결재무제표시스템 도입시 고려하여야 고려하여야 할 주요영역으로는 SPE, 내부거래제거, 미실현손익 제거, 투자자본상계, 기타영역이 있다.

3.1 특수목적기업(SPE)의 연결 관련 영역

그동안 K-GAAP상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었다. 다만 원본 또는 이익보전 신탁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연결하고 자산 이동화법에 따른 특수목적회사는 업무가 수동적인 범위에 한정된다면 일반적으로 연결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K-IFRS에서는 특정 실체에 대해 업종별 회계처리 같은 별도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으며, 특수목적기업에 해당될 경우 몇 가지의 연결여부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연결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실체에 대해 특수목적기업 여부와 연결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연결대상으로 선정된 특수목적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경우 다수의 특수목적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지분율 변동이나 연결범위포함 여부에 대하여 시스템내에서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수목적기업 관리 모듈을 구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특수목적기업이 다수가 아닐 경우에는 구축비용의 절감을 위해 시스템에 별도의 모듈을 두지 않고 수작업으로 판단 후 문서화하도록 업무흐름을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수목적기업의 경우 지분율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연결범위에 포함여부가 계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문서를 시스템에 강제 첨부하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특수목적기업은 회사 자체적으로 회계시스템을 운용하여 회계처리하기 보다는 펀드사무수탁사에게 회계처리를 위탁하여 결산 결과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결시스템내에 특수목적기업의 연결 관련 데이터를 입력할 때 제약이 발생할 경우가 많다. 펀드사무수탁사는 관련기업과 별개의 외부 실체이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를 인터페이스 하기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시 엑셀 등을 활용하여 미리 필요한 데이터의 양식을 구현 담당자가 사무수탁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해당 서식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특수목적기업의 담당자가 펀드사무수탁사로부터 기준가격장을 받아 이를 K-IFRS재무제표로 전환한 후에 이를 입력할 때 양식을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 연결시스템을 구축할 때 시스템 연결이 불가능한 회사들의 데이터를 엑셀 등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데이터입력 양식을 설정할 경우 회사의 CoA(Chart of account)와 일치하도록 양식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동인터페이스가 아니므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오류의 발생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데이터양의 과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수나 단순입력오류로 인한 실수 등은 흔히 자동인터페이스 시스템이 아닐 경우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실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 엑셀 등으로 작성된 양식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수목적기업을 연결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특수목적기업의 개별회계처리를 하는 사무수탁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본데이터를 제

공하는 사무수탁사의 결산시점 및 데이터 양식이 지배회사의 시스템에 적절히 반영될수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무수탁사의 경우 기준가 산정 및 관리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일반 공시목적의 재무제표를 시스템의 주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종전 회계기준 하에서는 특수목적기업이 연결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무수탁사의 시스템 및 자료제공 형태가 중요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연결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무수탁사를 포함한 전체적 시스템 구조 및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노력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3.2 내부거래제거 영역

내부거래란 연결실체 내의 개별 회사간 발생한 거래를 의미한다. 연결실체 내의 각 개별회사는 법적으로는 별개의 실체에 해당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단일의 실체로 간주되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러한 내부거래는 연결재무제표상 실질적인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내부거래 효과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절히 나타내기 위해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 또는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기말 잔액과 수익, 비용 계상액을 상계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내부거래 제거라고 한다.

내부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거래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첫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대여 및 차입거래 같은 자금거래의 유형이다. 둘째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만 발생하는 거래로서 무역신용장등의 인수 등이 연결실체내의 회사들 간에 이루어짐으로서 발생하는 신용공여형태의 무역거래를 들 수 있다. 셋째로 연결실체내의 회사들 간의 매출, 매입 거래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유형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일어나는 내부거래이다. 마지막으로 고정자산 취득, 매각 거래로서 이 유형도 역시 일반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내부거래의 제거는 개별회사 간 수없이 많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려우며 객관적인 신뢰성도 확보하기가 어렵다. 내부거래 제거를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기능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회사거래간 자동대사관리가 필요하다. 개별회사의 거래별로 사전에 일정한 로직에 의해서 선별 상계 제거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자동대사에서 불가능한 거래들 예를 들어 회사 간 회계처리 시점차이로 인한 것들은 수작업으로 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일치 작업을 통해 일치되지 않은 건들은 내부거래가 아닌 경우가 많지만 시스템에 구현하기 어려운 로직들이 있는 경우는 담당자가 확인을 통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환산차이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개별회사간 환산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내부거래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금액이 불일치하여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내부거래 상계를 시스템화할 경우에는 몇 가지 특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시스템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대부분의 내부거래 상계처리 과정에서는 손익의 변동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복합거래의 경우에는 발생가능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주로 매입법인은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매출법인은 매출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 한다. 이러한 경우는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는 매출거래일 경우 상대방인과 수익인식시점의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선급금을 적절한 원가계정으로 대체하는 수작업 분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3 미실현 손익의 제거 영역

미실현 손익이란 연결실체 내 대상회사 간 내부거래로 인해 인식한 내부손익으로서 재무상태표일 현재 연결실체의 외부에 매각 또는 상각 등을 통해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연결실체 내부에 남아있는 내부거래의 대상인 해당 자산 및 부채속에 포함되어 있는 손익을 말한다. 즉, 연결실체 외부로 실현되지 않은 내부거래의 대상인 당해 자산 및 부채는 연결실체 전체 관점에서 볼 때 완결된 거래가 아니라 단순히 같은 회사 내에서 물리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별

회사가 이미 인식한 해당 자산 및 부채속에 포함되어 있는 손익은 실현되는 시점까지 미실현된 것으로 보아 제거되어야 한다.

한편, 내부거래는 판매주체에 따라 지배회사가 손익을 인식한 하향판매와 종속회사가 손익을 인식한 상향판매로 구분된다. 하향판매의 경우 미실현 손익 제거는 해당 미실현 손익 전액을 지배회사 지분에 부담시키며, 반대로 상향판매의 경우에는 해당 미실현 손익을 지분율에 따라 지배회사지분과 비지배 회사 지분으로 각각 부담시켜 제거한다.

미실현 손익의 제거를 시스템화하기 위해서는 미실현손익제거의 절차를 정의하고 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우선 연결실체내의 회사끼리 거래된 자산 및 부채의 내역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개별적으로 시스템에 각 회사담당자가 입력하도록 하거나 자동으로 취합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코드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결실체끼리 거래된 자산 및 부채의 변동내역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전 회계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고정자산이 외부로 처분되는 등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미실현 손익 제거가 일시에 이루어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해당 내부거래에 따른 회사들의 이익률을 파악한다. 이익률을 파악할 경우에는 거래건별로 이익률이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이익률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일관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판매회사의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정이 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내부거래로 인한 이익률 및 지분율을 고려하여 미실현 손익¹⁾ 금액을 계산한다.

다섯째 당기 미실현 금액의 실현금액을 산정하여 내부거래로 인한 실현 및 미실현손익의 분개를 생성토록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미실현 손익 제거회계처리를 수행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고정자산 관련 미실현 손

익의 제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외에 대손충당금 및 사채와 관련된 미실현 손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는 절차를 따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손충당금의 경우 연결실체 각 회사의 연결실체에 대해 설정한 충당금 집계, 전기이전 충당금 계상분과 당기 설정한 충당금의 구분, 충당금 설정분에 지분율을 고려하여 지배회사지분과 비지배 지분으로 배분, 충당금 취소분개 및 비지배 지분 배분분개 생성의 절차를 따르게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사채의 경우에는 연결실체 각 회사의 연결실체로부터 취득한 사채 취득내역 집계, 취득한 사채의 평가여부 확인 및 평가내역 기록 및 입력, 취득한 사채의 사채추정상환손익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수행, 연결실체로부터 기 취득한 투자사채의 변동내역 집계, 사채 취득시점에서 발행법인의 사채 장부가액에 대한 정보 파악, 사채 취득가액과 발행법인의 장부가액을 바탕으로 사채추정상환손익 계산 지분율을 고려한 배분, 사채 변동정보를 바탕으로 사채추정상환손익 미실현 금액의 실현금액 계산의 절차를 따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미실현 손익의 제거를 시스템에서 설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법인세효과의 반영을 시스템화 할 때 자동조정이 아닌 수동조정방식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연법인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3.4 투자자본상계 영역

연결실체간의 투자자본 거래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의 발행주식 또는 소유지분의 취득과 관련된 거래로서 광의의 내부거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상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내역과 이에 대응되는 종속회사의 자본내역은 상계되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투자자본 상계라고 한다.

투자자본상계를 시스템화하기 위해서는 투자변동

1) 미실현 손익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고정자산의 미실현손익 금액 = 매입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 x 판매법인의 이익율

내역과 자본변동내역의 관리, 지분율계산, 처분손익 조정, 투자자본 상계 및 투자차액 관리, 비지배지분의 조정등의 기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투자변동내역의 관리는 투자내역을 관리하여 투자자본 상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투자내역이란 종속회사 등에 대한 투자주식의 변동내역을 변동일자와 변동원인별로 정리한 것으로 각종 지분율 및 투자차액 계산을 위해 사전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자본변동내역의 관리 역시 자본내역의 정확한 파악을 통하여 정확한 투자자본 상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자본내역이란 종속회사 및 지분법회사의 시산표상 자본계정의 변동내역을 변동일자와 변동원인별로 정리한 것으로 각종 지분율 및 투자차액 계산을 위해 사전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지분율을 계산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의 지분율이 모두 계산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직접지분율²⁾과 유효지분율³⁾이 모두계산 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두 지분율은 동일할 것이지만 복잡한 지분율을 가진 연결실체의 경우는 다를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처분손익의 조정은 회계기준상 연결회계처리 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투자자본의 상계 및 투자차액의 관리는 상기 절차에 따라 계산되고 관리된 결과를 이용하여 투자자본을 상계하고 투자차액으로 인하여 발생된 영업권 등을 관리하는 기능이며 마지막으로 비지배지분의 조정은 비지배 지분으로 조정되어야 할부분에 대한 조정 기능을 수행 한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주의해야 할 사항은 국내회계기준과 달리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투자차액인 영업권과 부의영업권에 대하여 자동 상각하는 절차가 없으며, 해당 결산 년 월의 공정가액평가를 수행해야하는바, 공정가액평가에 따른 손상차손(환입)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취득, 처분이 빈번한 특수목적기업이 연결범위에 포함되었으므로 특수

목적기업의 투자자본 상계 및 투자차액처리가 효과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시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한다.

3.5 기타 영역

3.5.1 연결주식의 작성

주식은 재무제표의 일부이며 중요한 공시항목중의 하나이다. 특히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난해한 부분이 주식의 작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시스템에 연결주식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결 주식을 작성하기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우선 개별주식의 입력을 각 담당자 및 연결실체내의 회사들이 각각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지배회사의 연결담당자는 개별주식 작성의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개별주식의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개별법인 담당자에 통보하여 개별주식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자동통보 할 수 있는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주식 중에는 자동데이터 인터페이스가 가능하여 자동화하기 쉬운 항목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셋째 주식의 경우는 그 양이 많고 각각의 담당자가 작성하여 연결시스템에서 그 데이터를 합산하므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연결재무제표 및 해당 주식항목 외의 타 주식항목과의 검증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식은 재무제표의 일부이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책임지고 작성되어야 하며 정확히 작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결주식을 작성 시에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하게 되므로 책임의 범위나 중요성 등을 담당자들이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책임자의

2) 직접지분율이란 직접 취득한 주식수를 전체 발행한 주식수로 나눈 비율이다.

3) 유효지분율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율을 직접 및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다.

검토 및 승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설계되어야 한다.

3.5.2 통합COA 설정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회계처리의 기본단위는 계정이며 각 계정에는 시스템으로 처리되기 위한 계정코드가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계정과목 및 코드의 체계를 CoA(Chart of account)라고 한다. 그동안은 개별사마다 각각 고유의 CoA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시스템에서는 통합 CoA가 필요하다. 통합CoA란 연결 실체내 모든 관계사의 계정체계가 하나의 통합된 표준 CoA로 운영되는 형태이다. 통합 CoA를 사용할 경우 개별 CoA를 연결 CoA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개별 CoA와 연결CoA간 맵핑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본사 통제 하에 통합 CoA가 관리되므로 일관된 회계정책 적용이 용이하다. 또한 경영관리정보 및 공시정보 산출 등 자료추출이 간편하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내의 회사들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두 하나의 CoA로 통합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결실체내의 회사들의 주요영업이 서로 상이할 경우 계정과목 등이 상이하여 많은 통합 CoA를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 개별사간 시스템이 틀릴 경우는 각자 고유의 계정을 사용하고 시스템 내에서 통합CoA와 맵핑하도록 설계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는 향후 시스템 통합 등의 개선방안을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고 새로운 계정이 발생할 때마다 맵핑을 다시 해야 하는 등의 실무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적용하는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스템에 CoA를 설정한 후 추가적인 신설, 변경 등을 위해서는 하나의 통제된 CoA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의 신설, 변경, 삭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두고 관리할 담당자를 두어 지속적으로 통합CoA시스템을 유지, 보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결 론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이의 최소화를 위하여 회계기준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되는 연결재무제표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적절한 설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성공적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국내와 국제 회계기준 차이를 비교하였고, 연결재무제표 도입의 필요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논문 후반부에 성공적인 연결재무제표의 도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영역별로 구축 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방안을 제안하였다. 특수목적기업의 연결 관련 영역, 내부거래제거 영역, 미실현 손익의 제거 영역, 투자자본 상계 영역, 기타 영역으로 연결주식의 작성과 통합 CoA 설정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기존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치밀하게 준비하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한 상태에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발생 가능한 많은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금융감독원(2000),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0-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연결대상 포함 여부“
- [2] 금융감독원(2004),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4-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회사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 [3] 박성중, 한경일(2010),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존 회계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8권 3호
- [4] 한국상장사협의회(2007),국제회계기준 적용시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5] 한봉희,황인태,강선민(2010),IFRS적용이 우리

나라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6] E&Y. (2006). Observ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IFRS



박성종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 고려대학교 경영학(회계) 석사
- 한국공인회계사
- 전) Ernst & Young 한영회계법인 근무

- 현)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회계정보시스템

E-mail: sjpark@anyang.ac.kr



한경일

1982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학사

1986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경영정보 학과 석사

1999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정보학전공
박사

전) 쌍용컴퓨터 SIS컨설팅 그룹 수석컨설턴트

현)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e-learning,
e-government, 회계정보시스템

E-mail: kihan@anyang.ac.kr